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정당들도 많다.

지구상에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력사가 흘렀고 오늘날 지구상에는 각이한 리념과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당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러나 조선로동당과 같이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력한 당은 없다. 조선로동당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속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있다.

조국통일은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온갖 고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자주통일을이룩하는것은조선로동당의확고부동한의지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이 조국통일3대원칙의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도록 걸음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온 민족을 그 수행으로 불러일으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우리 겨레에게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구현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애국애족의 내용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온 강도에 세차게 휘몰아치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을 꺾부시며 6.15통일시대를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근 70년이 되어오도록 지속되고있는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이 커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통일외조선세력의 무모한 북침전쟁도 발소동이 끊임없이 감행되어 우리 겨레는 전쟁이라는 민족적참화까지 들을 위험속에서 살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자주권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조선민족의 낫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운명이 걸린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할수 없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만단을 무릅쓰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야 할 성스럽고 책임적인 과제를 안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조국통일을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온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숭고한 책임감의 발현이며 애국, 애족, 애민 의 조국통일정책의 빛나는 구현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의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는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현장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에는 추호의 드림도 있을수 없다. 조국통일3대현장을 높이 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의지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고수하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는데서 뚜렷이 발휘되고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하고도 선차적인 문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시종일관 민족

자주를 주장하고있으며 자주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성과적리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리행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이며 애국적인 투쟁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해외외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합류하여야 한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하려는 겨레의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자

주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주도해나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을 보면서 당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가슴벅차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성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향도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대로 민족분렬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는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의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첫차리에 놓고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를 일관하게 실시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민족적광명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대오에서 손잡고나가기려는 확고한 립장과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뿐만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나가기려는 뜨거운 민족애가 어려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남남동도들과 해외동도들을 언제나 따듯이 사랑의 한몸에 안아주고계신다. 국가의 크고작은 중대사들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떠나간 남측의 6.15판계자들과 조국통일에 공헌한 인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화환과 조전도 보내주시며 그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뜨거운 인덕의 세계를 보면서 온 겨레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자제로온 아버지,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의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있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겨레의 단합된 투쟁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은 필연적이며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통일에국운들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밝은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민족과 통일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겨레의 정묘의 마음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나가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 통일애국의 나날들에는 겨레에게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해주신 잊지 못할 나날들도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외세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에 도전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더욱 증강하면서 새 전쟁도발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렸다.

조선반도에서 영구분렬과 전쟁위험이 날로 짙어가던 주제69(1980)년 10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천명하시였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의 남

조선강점으로 하여 나라가 분렬되고 북과 남에는 수십 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굳어질대로 굳어진 사상과 제도의 차이만을 절대시한다면 우리 겨레는 언제까지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불신과 대결만이 격화되게 될것이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통일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도로서 련방국가 창립방안을 내놓으시였

성된 정세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통일기운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통일방안이며 완성된 하나의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은 이 방안은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나라가 처한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통일국가가 실시하여야

아버지수령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의 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오늘날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귀중한 통일대강으로 되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애국의 마음과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을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한 세의 침략야욕에 의해 조선반도에 밀려오는 전쟁불구름을 선군의 총대로 막아내시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며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던 업쪽했던 그 나

련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확정한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여 우리 민족끼리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겨레앞에 쌓으신 거대한 민족사적공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오늘 또한 분의 천출 위인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올해의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위업수행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조국통일위원회 중대제안, 특별서한 등이 련이어 발표되고 북남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겨레는 통일신심과 락관을 넘쳐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민족이 가는 통일의 앞길에 의연 협준한 장애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가 있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통일강국이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순

달라진 밥상의 높이

평양의 보통강반에 금양봉사기지인 청류관이 새로 건설되었을 때였다. 개관을 앞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곳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가족식사칸을 돌아보실 때였다. 밥상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다시금 허리를 굽혀보기도 하신 그이께서는 누구에게라함이 밥상이 좀 높아보이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 밥상의 높낮이에 대해 가늠해본 사람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이 높지 않은지 방안에 들어가 상앞에 앉아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한 사람이 밥상에 마주앉아 높이를 짐작해보았다. 두손을 올려놓고 식사할 때의 자세를 취해보아도 별로 불편한게 없었다. 그는 별로 높은감을 모르겠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앉은 키와 상높이를 가늠해보고 알맞춤한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시였다. 밥상의 높이를 이모저모로 눈여겨보신 그이께서는 이 방은 가족들이 와서 식사할 방이라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해야 하겠는데 아이들이 불편해하면 부모들의 마음이 즐거울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옳은 말씀이었다. 가족식사칸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인민을 위한 봉사기로서의 청류관을 완전무결하다고 볼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밥상을 아이들에게 지내 높이 않게 좀 낮추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밥상에 마주앉은 한식숙의 앉은 키와 식사분위기를 구석구석 헤아리신 세심한 가르침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가신 파도세찬 초도의 바다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수호를 위해 이어가신 전선길의 높은 산, 험한 평길에는 현지의 그 자국자욱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하나하나에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여있다.

오 성 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 씀하시였다. 자신께서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없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오성산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나날 전선시찰의 길에서 역수로 내린 소나비로 하여 벼랑길에서 미끄러져내리는 승용차를 한치한치 미시며 고지우의 병사들을 찾아가신 선군평장의 모습이 우뚝이 안겨오는 곳이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전방지휘소를 찾아 전선길을 달린 군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나라의

선군길이 전하는 뜻깊은 지명들

령도자, 군최고사령관이 평화시기에 최전방의 자그마한 지휘소가 위치한 협산오지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백전두곰이의 오성산 갈매랑길은 오늘날도 장군님의 선군길이 얼마가 간고하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사람들에게 눈물길게 새겨주고있다.

판 문 점

판문점은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이 총부리를 마주하고 대치하고있는 최전선의 최전방이다.

바로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신 장군님께서 시찰하시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하였다.

자연도 회안개를 띄워 그이의 안영을 지켜드리던 그날 장군님께서

판문점초병들에게 노예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주적인민, 자주적군위병이 되겠는가, 나는 동무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당부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판문점은 오늘날도 빨치산의 아들이신 그이의 크나큰 담력과 배짱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초 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패색을 띠시고 초도의 병사들을 찾아가실 때의 바다날씨는 더없이 험하였다.

집체같은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만류하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섬에서 병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땅이 맞붙은것 같은 풍랑속에서 요동치듯 전진하는 패색정이 부두에 닿았을 때 사나운 파도와 풍랑속을 헤쳐오시느라 흠뻑 젖은 장군님의 야전술옷자락을 부여잡고 병사들은 《만세!》를 부르기도 못했었다.

본사기자 리 경 율